

Les Essences  
de Diptyque

DIPTYQUE

PARIS

## Les Essences de Diptyque : 자연이 선사하는 보물을 찾아나서는 후각적 오디세이아.



Diptyque 브랜드는 창립 이래로 늘 아름다움과 시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자연에서 그 창작적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야생적인 자연부터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자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자연적 소재가 지닌 고유의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면을 조명하며, 후각과 시각의 세계 속에 생명과 감동을 불어넣었습니다.

Diptyque 는 Les Essences de Diptyque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후각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섯 종류의 오 드 퍼퓸으로 구성되는 본 컬렉션은, 산호와 진주모, 나무껍질과 수련 및 사막의 장미와 같이, 고급지고 매력적이지만, 후각적으로는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자연의 보물들을 예찬합니다. 이는 향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Diptyque가 선택한 자연의 보물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감각을 향수로 재해석하기 위하여 브랜드의 파트너 조향사들의 창의성과 후각적 전문성이 총동원되었습니다.

## 어느 아티스트 그룹에 의해 고안된 후각적 작품

1968년 브랜드 창립 이래로 Diptyque의 향수는 늘 여러 창작 아티스트들의 후각과 손재주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세 명의 Diptyque 공동 창립자들은 조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과 여행에 대한 그들의 추억을 향기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창작된 향기의 삽화를 직접 담당하여, 후각적 풍경이라고도 불리는 그림과 그래픽 구성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본능과 감각이 공존하는 창작 방법인 동시에, 자유로운 톤과 창작 속에서 Diptyque가 60여년 전부터 지켜오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Les Essences de Diptyque 컬렉션은 이러한 창작 전통을 이어받아, 조향사와 삽화가 간의 각각의 노하우를 조합하여 후각적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향기구성을 선사하고, 상상과 감각을 사로잡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작업을 위하여 Diptyque는, 향수업계의 거장들이자, 브랜드와 오랜 기간 함께 협업해 온 조향사들인 파브리스 펠르그랭 (Fabrice Pellegrin)과 알렉상드라 카르랭 (Alexandra Carlin), 나탈리 세토 (Nathalie Cetto)와 올리비에 페슈 (Olivier Pescheux)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 자연의 보물들

을 반향하는 향기구성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탁월한 후각적 특성을 토대로 세심하게 선택된 구성원료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각각의 천연 원료의 생산지 및 생산지 추적 가능성이 보장되어 제품의 탁월성에 대한 Diptyque의 약속을 구현합니다.

아일랜드의 조형예술가 나이젤 피케 (Nigel Peake)는, 브랜드의 전통을 고수하여 현실과 상상 간의 회화적 구성을 고안하였습니다. 나이젤이 그의 창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는 자연은 본질적이면서도 시정이 깃든 것으로서, 그 자연의 각각의 디테일은, 브랜드의 시적 영혼을 담고 있는 상상 속의 여행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마법같은 매력을 보여 줍니다. 나이젤 피케는 종이에 그려진 수채화 컬러톤을 통해 본 컬렉션에 영감을 불어넣어 준 자연 요소들을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단색화법으로 처리된 이 자연 요소들이 나이젤의 예술적 붓터치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향수병 유리 위에 부조된 블랙 라인 장식은 수채화의 컬러와 대조를 이루면서 한층 추상적이고 섬세한 해석을 유도합니다. 이 장식 그림들은 각 요소가 지닌 가장 본질적인 형상, 가장 순수한 모습을 되찾아 줍니다.



## Diptyque 향수병의 재해석

Diptyque 브랜드의 오리지널 향수병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향수병의 새로운 원형이 탄생되었습니다. 유리에 새겨진, 브랜드를 상징하는 오발 형상이 마치 창문처럼 보틀 뒷면에 그려진 나이젤 피케의 삽화를 투영해 줍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된 원형 향수병마개는 블랙 컬러로서, 향수병 유리의 투명성과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유리병 위에 입체적으로 그려진 장식 삽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형상 간의 조화를 통해, 본 향수의 정제된 세련미를 보여 줍니다. 이 새로운 원형의 향수병 고안을 위하여 Diptyque는 에코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무한대로 리필이 가능하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포장 케이스는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각 향수병을 담고 있는 채색 파우치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Les Essences de Diptyque 컬렉션은 자연을 찬미하는 한편의 시로서, 각 자연 요소의 정수가 귀한 보물처럼 향수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감각을 아우르며 시정이 깃든 본 컬렉션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탁월한 후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 알렉상드라 카르랭의 CORAIL OSCURO

계열 : 미네랄 플로럴

햇빛과 그늘이 어우러져 매력적인 풍광을 연출하는 베니스의 석호 한가운데, 진홍빛 산호들이 석호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산호는 뛰어난 미를 자랑하는, 진정한 바다의 꽃으로서, 그 붉은 가지들이 흐르는 물살을 따라 너울거리는 광경은 바로 베니스의 스피릿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니스는 Diptyque의 창립자들이 선호하던 곳으로서, 이들은 흔히 머나 먼 미지의 땅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곳 베니스에서 영감을 찾곤 하였습니다. Corail Oscuro라는 이름은 바로 해저의 어둠과 그곳에 서식하는 산호의 강렬한 색상이 보여 주는 콘트라스트로부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카라바조와 티티안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키아로스쿠로 (명암의 대조효과) 회화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조향사 알렉상드라 카르랭이 고안한 이 프래그런스, 로사 부르보니아나 앵솔루트와 만다린의 맑은 빛이 융합되고, 산호라는 바다 생물의 에센스를 채취하기 위하여 솔티 미네랄 어코드의 따스함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저는 염색과 산호의 붉은 색상을 조합하고 싶었어요. 하늘의 빛과 해저의 어둠 사이에서 너울거리는 석질의 미네랄 꽃이지요. »

나이젤 피케가 흰색 종이로 제작된 포장 케이스 위에, 석호 바닥에서 해양 생물계를 보호하고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는 선홍색 산호를 섬세한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 클로즈업 : 만다린

마다가스카르의 현지 공동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만다린의 껍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에센스를 얻기 위하여 그 어떤 기계적 방법도 사용되지 않으며, 완벽한 생산지추적이 가능하고, 자연에서 생분해되며, 재생 가능합니다.





## 파브리스 펠그랭의 LUNAMARIS

계열 : 스파이시 앰버리

찬란한 빛과 변화하는 색채로 우리를 사로잡는 진주모는 조개 속에서 은밀하게 생성됩니다. 순수함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진주모는 인내심으로 기다리며 감탄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 그 진주빛 광채를 드러내 보입니다. Lunamaris는, 그 이름에서 연상되듯이, 진주모와 그 섬세한 무지개빛을 조명하는 것으로서, 바다 위에 반사되는 달빛의 뉘앙스들을 떠올려 줍니다. 조향사 파브리스 펠그랭이 고안한 이 프래그런스는, 마치 무지개빛 표면 위에 어리는 컬러 댄스와도 같이, 시스터스의 빛나는 부드러움과 핑크 페퍼의 스파이시 액센트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인센스의 미묘한 노트는 광물의 신선함과 더불어 포근한 열기를 연상시켜 주면서 강렬하고도 미묘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 저는 진주모의 무지개빛 뉘앙스를 향기 속에 재해석해보고 싶었어요.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후각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원료들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원료가 본연의 자리를 찾고 부드러운 뉘앙스가 갖는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향기이지요. 핑크 페퍼는 컬러풀한 스파이스의 분출 효과를 보여주고, 인센스는 송진의 순수한 노트를 발산하고, 시스터스는 앰버리 열기를 표현합니다. »

다양한 붓터치로 표현된 나이젤 피케의 삽화는 진주모의 완만한 입체감을 떠올려 줍니다. 스카이 블루 컬러에서 파스텔 색조의 모브-다크 퍼플 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컬러톤의 조합이 진주모의 무지개빛을 반영해 주고 몽상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 클로즈업 :

이 시스터스는 30여년 전부터 안달루시아 지방의 현지 생산자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으며, 자연적 순환 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 수확 사이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 들판을 휴한지로 보존함으로써 그 땅에 소관목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수확자들은, 시스터스가 다시 자라날 수 있고, 지속적 야생 생산을 고수할 수 있도록, 너무 짧은 가지들은 수확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재배 방법입니다.

## 나탈리 세토와 올리비에 페슈의 BOIS CORSÉ

계열 : 앰버리 우디

굽이진 숲속에 보호력 있고 견고한 나무껍질이 세월과 다양한 요소들의 공격들로부터 부드러운 나무 중심부를 보존해 줍니다 Bois Corsé는 바로 Bois Corsé의 이름은 나무껍질 및 커피향의 농도 뉘앙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깊은 특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탈리 세토와 올리비에 페슈가 함께 고안한 이 프래그런스 는 숲속의 비밀스런 오솔길들을 탐색해 보는 듯 합니다 산달우드 에센스의 밀키함이 조합된 이 우디향은 비할 데 없이 깊은 노트를 드러내 보입니다 향기구성의 중심을 이루는 블랙 커피 노트의

« Bois Corsé의 향기를 찾기 위해 저는 자연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나무의 질감 » 나탈리 세토

흰색 종이로 제작된 포장 케이스 위에 불규칙한 형상들이 모여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며, 마치 껍질로 뒤덮힌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이젤 피케는 따뜻한 브라운 톤으로 표현된 꺼칠한 나무껍질을 만지고 볼 수 있게 합니다.

### — 클로즈업 : 산달우드 나무

호주 토착민 공동체들의 땅에서 자라나는 오스트랄리아 스피카툼 산달우드는 토착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재단과 맺어진 파트너십을 통해 재배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나무들을 심어 오랜 세월을 통해 유지되어 온 이 자원의 재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달우드 생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은 그들의 자연적 생태계를 활발히 관리하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 나탈리 세토와 올리비에 페슈의 LILYPHÉA

계열 : 그린 앰버리

마치 어느 인상주의 그림의 후각적 해석처럼 Lilyphéa는 연못 바닥으로부터 올라와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감동적인 자연의 창조물인 수련에 깃든 시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부드럽고 관능적인 텍스처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Nymphéas ( 및 그 이름의 영어 번역인 워터 릴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Lilyphéa 향수는 맑은 물 위에 떠있는 수련의 우아한 발레춤을 연상시켜 줍니다 조향사 나탈리 세토와 올리비에 페슈가 고안한 이 프래그런스에는 비올렛 잎새들과 조합된 카르다몸의 신선함이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의 빛나는 부드러움과 미묘하게 어우러집니다.

« Lilyphéa 향기를 위해 저는 수련의 잎을 연구해 보았어요. 수련잎의 그린은 바삭하고 강렬하며, 매끈하고 유연하며, 도톰하고 수액으로 가득차 있어요. 이 그린의 에너지를 보존하면서도 쾌적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저는,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앰솔루트의 부드러움과 조합된, 갈바눔 에센스 향기와 비올렛 잎 앰솔루트의 수액 부분을 대조시켰어요. » 나탈리 세토

나이젤 피케는 블루-그린 단색화의 수련 그림으로 포장 케이스를 장식하여 시적인 방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클로즈업 :

친환경적 생산으로 ECOCERT의 인증을 받은 이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는 완벽한 생산지추적이 가능하여 농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바닐라 심는 법과 건조법촌락들을 위한 농촌개발 등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교육 및 식량 안보 등과 같은 다양한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 파브리스 펠그랭의 ROSE ROCHE

계열 : 시트러스 플로럴

드넓은 사막에 피어나는 사막의 장미는 그 꽃잎 하나하나가 자연의 힘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파브리스 펠그랭은 Rose Roche의 에센스를 식물과 미네랄 간의 미묘한 조합처럼 고안했습니다. 오리엔탈 향기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향기는 장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마치 바람으로 만들어진 듯 지극히 가벼운 느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레몬으로 다져진 노트가 센티폴리아 로즈 꽃잎들을 환하게 받쳐 주고, 미네랄 파출리가 매혹적인 깊은 맛을 더해주어, 마치 사막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가는 발자국처럼 끝없는 잔향을 만들어 냅니다.

« 이 향기 창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혀 예기치 못한 정밀성으로 사막의 모래 형상을 만들어내는 바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모래알갱이에 깃든 뜨거운 광물적 느낌을 떠올려 주는 향기를 통해 이 사막의 바람이 갖고 있는 원초적 열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시트러스 과일의 빛나는 명료함과 파출리의 깊은 질감적 노트 간의 콘트라스트로 이 로즈 플로럴 향기를 조각했어요. »

나이젤 피케가 포장 케이스 위에 섬세한 라인으로 그린 수채화는 분홍빛과 모래빛으로 표현되어, 사막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 — 클로즈업 : 레몬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의 레몬은 «PETITS JARDINS (작은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여러 개인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가족 전통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또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수확되는 이 레몬은 우툴두툴한 외관으로 일반 시장에서는 «외면되고» 있으나, 그 탁월한 향기는 후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산지대에서 자라나는 이 레몬은 그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유니크한 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Les Essences de Diptyque 컬렉션은 현실과 꿈의 교차로에서 경이로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본 컬렉션을 구성하는 100ml 용량의 향수 및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미니 어치 포맷의 디스커버리 세트는 9월 3일부터 부티크에서 판매됩니다. 선물하기에 이상적인 컬렉션입니다.

고객에게 한층 깊은 후각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Maisons Diptyque 파리과 런던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향수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Corail Oscuro 오 드 퍼퓸 100ml  
Lunamaris 오 드 퍼퓸 100ml  
Bois Corsé 오 드 퍼퓸 100ml  
Lilyphéa 오 드 퍼퓸 100ml  
Rose Roche 오 드 퍼퓸 100ml  
Les Essences de Diptyque 디스커버리 세트 5x10ml

인론 문의

Han PR

jylee@hanpr.net - T. 02.6494.2843

chmy@hanpr.net - T. 02.6494.2849

@diptyque #diptyque #diptyqueparis



diptyqueparis.com

Diptyque - 5, avenue de l'Opéra Paris 1<sup>er</sup> - France

DIPTYQUE

PARIS